

K-뷰티, 美·유럽 홀렸다… 中企 수출 640억弗 ‘신기록’

중기부, 상반기 中企 수출동향

전년比 11.6% 늘어 호조 지속
수출기업 8만490곳 역대 최다

온라인 수출 7.4억弗로 급증
화장품 50.7억弗, 30.7% 증가
반도체·장비 AI 호황에 최고치

중소기업 수출이 화장품 등 'K-뷰티' 호조로 상반기 기준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8만490개사(잠정치)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중에선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9개국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중동 수출은 중고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에서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내놓은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총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였던 지난해의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찾은 외국인들이 메이크업 강연을 들은 후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574억 달러보다 11.6% 늘어난 액수다. 역대 2위는 591억 달러를 기록한 2022년이였다.

중소기업 수출을 꾸준히 이끌고 있는 화장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50억7000만 달러를 수출, 역시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7%나 증가한 액수다.

가장 수출이 많은 기초 화장품(23억

2000만 달러)이 전년 동기보다 34.8%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팩은 2억6000만 달러로 53%나 늘었다.

화장품만 상반기에 9억6000억 달러를 수출한 미국은 9분기 연속 K-뷰티 최대 수출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 부과·소액면세 폐지 등 통상위협 속에서도 콘텐츠 커머스, 현지 리테일 팝업·체험형 마케팅 등 현지온·오프라인 채널 확대가

정적 영향을 줬다.

화장품은 유럽에서도 폴란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2022년 3분기 이후 두자릿 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반기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5억5000만 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하며 잠시 주춤했다.

화장품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주요 품목인 중고자동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33억1000억 달러를 수출하며 지난해 상반기(39억1000만 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다만 독립국가연합(CIS)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나 하락했다. 중고차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전분기 대비 증가율 65.2%), 알바니아(〃58.5%), 타지키스탄(23.2%) 등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반도체(22억8000만 달러, 48.3% ↑), 반도체 제조용 장비(20억3000만 달러, 33.2% ↑)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 및 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 및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베트남 등으로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8.6% 늘어난 7억4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4051개사(30.5% ↑)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은 7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통로로 가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온라인 화장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다시 썼다.

중기부 심재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품목 다양화 및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보조배터리 사고 잇따라… 항공사 '직접관리' 검토

반입·사용 규제 강화에도 화재 지속
번호 부여 뒤 전용용기 일괄 보관
탑승 지연·불실 책임 등 과제

국내외에서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관련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리 방식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승객 자율 관리 중심의 현행 체계 대신 항공사가 보조배터리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에서 필리핀 칼리보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났다. 앞서 1월에도 청주행 티웨이항공과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들이 진압했다. 지난해 1월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도 수하물 선반에 보관된



제주항공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금지 안내 포스터. /제주항공

보조배터리의 내부 절연 파괴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강도 높은 보조배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위탁수하물 반입과 기내 선반 보관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160Wh 이

하 제품만 1인당 최대 2개까지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할 수 있다.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보조배터리의 위탁수하물 반입을 금지하되 100Wh 이하는 개인 사용 목적이면 개수 제한 없이, 101~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기내 사용이나 충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우스웨스트·아메리칸·델타항공 등은 선반 보관과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등 자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 미국 FAA에 따르면 기내 리튬배터리 사고는 지난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 사고 품목으로는 보조배터리(299건)와 전자담배

(157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는 두 품목의 확산으로 항공기 내 리튬배터리 양이 사실상 두 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반입·사용 규제만으로는 화재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내 리튬배터리 양이 늘어난 데다 기내 기압은 지상의 60~80% 수준으로, 손상되거나 품질이 낮은 배터리의 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승객이 발열·팽창 등 이상 징후를 직접 확인하는 구조다.

논의의 초점도 관리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항공 당국과 업계는 관리 책임을 승객에서 항공사로 전환해, 탑승 시 보조배터리에 번호를 부여한 뒤 전용 용기에 일괄 보관·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SK네트웍스 투자' 케이론

800만弗 시드투자

멘로벤처스 참여·글로벌 자문단 위촉

스탠포드 대학 출신 AI 및 바이오파 전문가들이 SK네트웍스와 함께 설립한 AI 신약개발 스타트업 '케이론(Cheiron)'이 실리콘밸리 투자업계의 선택을 받았다. 멘로벤처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참여 속에 800만 달러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에 나서며 글로벌 AI 바이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케이론은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탈인 멘로벤처스가 이번 시드 투자 라운드의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더나 등 40개 이상의 바이오텍 기업을 창업한 로버트 랭어 MIT 석좌교수와 프리다 루이스-홀 전 화이자 최고 의학 책임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CJ대한통운, '더 운반' 화주 7000곳 돌파

차주 7만명 확보, 3년 새 37배 증가

CJ대한통운의 미들마일 운송 브랜드 '더 운반(the unban)'이 출시 3년 만에 7000여 곳의 화주사, 7만 여명의 차주가 입자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더 운반은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디지털 운송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나가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화주는 사업 초기 150여 개사에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000여 개사를 넘어섰고, 차주도 1900여명에서 3년 새 3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차주가 입자는 화물운송 주선시장 영업용 화물차 약 26만 대 가운데 30%에 육박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대규모 디지털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물운송 플랫폼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운송 매칭 기회가 확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 경쟁력이다.

지난 2023년 화·차주 실시간 매칭 플랫폼으로 출발한 더 운반은 올해부터 기업 고객 계약운송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정기 물량에는 안정적인 차량과 운임을, 수시 물량에는 신속한 배치를 지원해 고객이 물동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주에게는 다양한 화주의 운송 물량을 연결해 공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행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 인니 니켈 제련소 핵심설비 반입

연산 9만톤 규모, 연내 준공 목표

에코프로 그룹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련소가 광석에서 니켈을 분리하는 핵심 설비인 반응기를 반입하며 연내 준공을 향한 핵심 공정에 들어갔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BNSI 제련소 건설 현장에서 반응기 입고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반응기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니켈 광석과 황산 용액을 반응시켜 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HPAL 공정의 핵심 설비다. 반응기 반입은 BNSI 프로젝트가 토목·건축 중심의 초기 공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련 설비 설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BNSI 제련소 일대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설비와 원료, 부자재 등의 통관·세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 관련 세금도 유예 또는 면제돼 제련소 운영 효율과 운전자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연산 9만톤 규모의 BNSI 제련소에는 기당 연산 3만톤 규모의 반응기 3기가 설치된다. 현재 2기가 반입됐으며 나머지 1기는 오는 9월 도착할 예정이다. 반응기 설치가 완료되면 제련소는 이르면 올해 말 준공과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2분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BNSI는 에코프로가 지분 39%를 보유한 합작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기업 PTVI(30%)와 중국 GEM(21%)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포티투닷

모빌리티 인재 70명 채용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마태 모빌리티 혁신 인재 확보에 나선다. 포티투닷은 모빌리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7개 부문 최대 70여명의 경력사원을 모집하는 집중 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AI, 차량용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 기획, 사업개발 등 비개발 직군의 경력사원도 함께 모집한다. 채용하는 전체 포지션은 30여개로, 주요 개발 직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딥러닝·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등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자 부담을 줄인 '빠른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서류접수 후 면접 진행 여부는 업무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안내되며, 1·2차 면접 등을 포함해 총 28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양성운 기자 ysw@